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안 해야 행동을 안 하게 된다.
2. 불의한 것은 미리 알고 아예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3. 그 날이 산에 가면 죽는 날이라면, 아예 산에 한 걸음도 가지 말아야 산다. 이와 같이 불의는 아예 생각을 안 해야 행동을 안 한다.
4.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느라 아예 그 생각을 못 했더니 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것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5.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빠져 행할 때, 세상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여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이같이 살아라.
6. 죽은 자는 공포에 떨지 않는다. 잠을 자느라 못 들은 자도 그러하다.
7.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이때부터 뇌가 작동하여 그 일이 진행된다.
8. 세상을 보고 접하면 뇌가 그것으로 진행된다. 고로 주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
9. 불의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진행한 자는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90% 힘들다. 아예 생각하지 않은 자는 안 하는 것이 99% 쉽다.

10. 미리 알고 행하는 자는 99% 할 수 있다.

11. 자기가 죽을 곳인지 아는 자는 절대 그곳에 안 간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목숨 다해 절대 안 가기 때문이다.

12. 그 일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안 해야 안 하게 된다.

13. 그 일을 해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야 하게 된다.

14.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큰 운명의 결정체는 ‘생각’이라는 뇌의 결정체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을 이룬다.

15. 자신이 그 일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알아도 못 하는 이유가 있다. 생각이 약하기 때문이다. 뇌의 ‘생각’이라는 결정체가 강철같이 강하여 생각을 강하게 진행해야 몸도 따라 행하게 된다.

16. 자기 ‘육신’이 게으른 것이 버릇되어 있기 전에 ‘생각’이 게으른 것이 버릇이 된 것이다. 고로 게으른 생각을 먼저 고쳐야 된다.

17. ‘생각’이라는 체질과 습관과 버릇을 고쳐야 성공한다.

18.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환경으로 받는 것에 의해 자기 뇌에서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19. 아예 냄새를 맡지 말아야 뇌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20. ‘생각’이라는 냄새를 아예 풍기지 말아라.
21.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마음에 스며들어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22. 하지 않을 일은 아예 생각을 안 해야 행동도 안 하게 된다.
23. 할 일은 아예 생각해야 행동도 하게 된다.
24. 아예 생각을 주께 맡겨라.